

건축문화 RANKING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7.06.09 1호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전남남도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협회
발행인 :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광주건축사회, 2017년도 구별협의회 간담회 진행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구조·안전·디자인문제도 시행 논의 등

광주건축사회, 건축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축사회원 6인과 각 구청 허가공무원 1인으로 구성, 6월 1일부터...

광주지역 여성건축사회원, 제23차 대한여성건축사대회 참가

지난 5월 19일과 20일, 경남지역에서 열린 대회에 10여명 참석

전남건축사회, 한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참여

지난 5월 22일 전남 도청 서재필실에서... 기술지원 및 자문 역할 나설 것으로

Editorial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전남 나주시, 나주지역건축사회와 건축행정 발전 워크숍 개최

지난 5월 19일 나주 빛가람동 호텔코어에서... 관내 건축사·관련 공무원 60여명 참석

동산대 건축공학과, 성과발표회 및 졸업작품전 개최

지난 6월 1일 학내 도서관 1층 로비에서... 30주년 기념으로 타학과와 공동 진행

전북지역 건축인 한자리에...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난 5월 13일 전북 완주군 구이 모악산 축구장에서... 건축인 800여명 참석

전북 완주지역건축사회 개소식(현판식) 개최

전북 전주 추원호 건축사, 서예작품 전시회 '서예와의 만남전' 개최

전주대 건축학과, '지역성'이란 주제로 제19회 졸업전시회 개최

오는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

대촌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설계공모

건축문화사랑 2017년도 상반기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워크숍 개최

사랑에서 _ 서른한 번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기억하십니까?

작품 _ 7_river, Gallery 해밀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Editorial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둔 우리의 임금실태와 노동조건은 어떠한가. 임금하면 따라오는 것이 일감과 설계비다. 일감은 70% 넘는 서울회원이 소규모 건축물 설계를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2016년 세움터 통계가 회자된 바 있다. 건수 자체가 없는 것은 비단 서울뿐만이 아닐 것이다. 설계비 역시 민간뿐 아니라 공공건축에서의 단가 후려치기도 계속되는 실정이다.

반면 업무량은 늘었다. 설계감리 분리로 자신이 감리를 보면 커버될 수 있었던 설계부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업무량은 늘고 설계비는 제자리다. 관공서의 과도한 공짜 과업지시는 관행처럼 존재한다. 줄어드는 일감과 쥐꼬리만한 설계비로 직원조차 고용하지 못하는 1인 건축사사무소는 늘고 있고, 직원을 고용해도 최소한의 인력이다.

그러다보니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에게 야근은 기본이며 주말 없이 일하는 것도 관행이다. 현실성 없는 설계비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설계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주말 없이 365일 노동자로 살지만 휴일과 수당 등 노동조건을 이야기하면 건축에 대한 열정부터 의심받기 일쑤다. 건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배움을 무리로 밤낮없이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어쩌면 건축사 자신이 그리 혹독히 살아왔기 때문에 아파야 청춘인 것만양 배고픈 열정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 462.5원으로 처음 시행이 되었다. 올해 2017년에는 6,470원이며 주 40시간제로 환산하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135만2,230원 가량이 된다. 만약 최저임금 1만원 실현된다면 월급은 약 209만원이 된다고 한다. 아니 꼭 1만원시대의 문제가 아니다. 1970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혹사시키지 마라!"를 외치며 분신했던 전태일이 멀리 있지 않다. 바로 건축계 구석구석에서 노동이 착취되고 있다. 변해야 한다. 배고픈 열정에서 벗어나 건축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암울한 것은 이렇게 열정페이에 가까운 업무강도를 견디어 내며 건축사를 취득하고 개업을 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근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정 설계감리비의 의무화 내용의 건축사법이 새삼 고맙게 다가온다.

강미현 논설위원

7_river (신창동 근린생활시설)
박대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광야



- site 전면에 흐르는 강.....
이 강을 어떻게 형상화시킬 것인가?

"건축은 빛 아래 저대를 드러내는 공간(매스)들의 교묘하고 정확하며 장엄한 유희이다" - 르.코르뷔제
"매일매일 다른 빛의 질에 따라 변하는 형상 새로운 경이에 가득 찬 공간" - L.칸

7개의 강을 건물에 반영함으로써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7개의 빛을 담은 강이 흐르며 단순하고 심상한 주변 매스들 사이에서 주변과 구별되는 존재감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 대지면적 : 497㎡ / 건축면적 : 281.28㎡ / 연면적 : 703.67㎡ / 층수 : 지상 3층

광주건축사회, 2017년도 구별협의회 간담회 진행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구조·안전·디자인자문제도 시행 논의 등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구별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3일간 5개구 별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윤양현 부회장(이조 건축사사무소)의 주제로 진행되어,

각 구별 일정에 따른 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 60여명의 회원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시행 관련 건축법 내용과 건축법시행령 입법 예고 주요내용, 건축물 분리감리지정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보고가 있었으며, 건축물 구조·안전·디자인자문제도 시행의 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다수의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축물 구조·안전·디자인자문제도에 대해 장단점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한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양현 부회장과 사무국 관계자는 "건축물 구조·안전·디자인자문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6월 14일까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구조·

안전·디자인자문제도 시행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등 회원, 고등학생 진로직업교육봉사 진행

지난 5월 24일 광주 진흥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장덕고, 동신여고 등...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회원 건축사들은 5월 중순부터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직업진로교육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직업진로교육 봉사활동은 5월 24일 진흥고등학교를 시작해 장덕고등학교와 동신여자고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에서 진행됐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해부터 건축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진로 선택 시 도움을 주고자 광주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축사 진로직업교육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CAD의 혁신

midas ARCHIDESIGN - 마이다스 아키디자인은
도면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건축설계 전용 CAD입니다.

자동생성·축척자동·정보연동이라는 정보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도면직업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주: 마이다스이이티 | 전화문의 1577-7618 | www.midasarchi.com

MIDAS ARCHIDESIGN

마이다스 아키디자인

광주건축사회, 건축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축사회원 6인과 각 구청 허가공무원 1인으로 구성, 6월 1일부터...

광주건축사회는 건축공사감리 지정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한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로부터 검토 완료 통보를 받음에 따라 6월 1일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건축사회원 6인과, 분쟁발생 구청의 허가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건축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규정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89585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축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동선	(주)원일 건축사사무소
위 원	길종일	(주)디아이지건축사사무소
	윤형근	미지이엔지건축사사무소
	노진욱	종합건축사사무소 은강
	박명호	이상 건축사사무소
	정재한	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
	-	-

2017년 전남대학교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 개최

지난 6월 2일과 3일, 전남대 체육관 등에서... 건축 등 전공분야 접하는 자리로

전남대학교에서는 지난 6월 2일과 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건축을 비롯한 자연과학, 공학, 교육학, 의류, 수학, 사학 등 여러가지 전공분야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학생들 등 참가자들은 많은 전공분야 중 관심이 있는 곳에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공분야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체험 및 전시가 함께 진행됐다.

배성훈 전남대학교 학생기자

광주 회원동정

• 휴업

- 조기호 건축사 / 에이씨에스 건축사사무소

• 변경(상호)

- 김현준 건축사 / 삼호 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금광

- 이주경 건축사 / 주식회사 발해 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상호)

- 나종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늘 / 광주 서구 풍곡로38번길 33, 2층

- 장경민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도건축 / 광주 북구 서림로 28-1(임동)

• 변경(소재지)

- 김성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구성 /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10(403호)

- 최시화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온 /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188번길 37-1, 3층

• 결혼

- 주형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삼정 / 차녀 결혼 - 05월 20일(토)

- 이재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영조 / 딸 피로연 - 06월 23일(금) 오후 6시 라페스타 4층

광주지역 여성건축사회원, 제23차 대한여성건축사대회 참가

지난 5월 19일과 20일, 경남지역에서 열린 대회에 10여명 참석



지난 5월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남도에서 열린 제23차 전국여성건축사 대회에 광주건축사회 여성분과위원회 강연심 위원장(백두 건축사사무소)을 비롯한 여성건축사회원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경남 통영, 거제, 진주지역에서 '都.詩.樂 _도시, 시와 음악을 품다'라는 주제로 건축물 투어와 강연회, 본대회 기념

식 등이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 안길전 부회장(광주 회원)이 격려차 참석했다.

세무법인 서정, 광주건축사회 세무자문위원 정호령 세무사

"국세청 22년 경력으로 어려운 세금문제 도와 드립니다."

▶ 취급업무 ◀

세무상담 / 신고대리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조세불복 / 세무조사조력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31 (일곡동, 광산빌딩 5층)
Tel. 062-575-3105~7 / Fax. 062-575-3109 / E-mail : ho-rjung@hanmail.net



대지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서성리 / 대지면적 : 327㎡ / 건축면적 : 64.90㎡ / 연면적 : 47.70㎡ / 층수 : 지상 1층

별마루 차실 (화순군 동면 단독주택)

정일중 건축사 / 다예촌 건축사사무소



담양 창평 주택

노기송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위드



대지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 대지면적 : 539.0㎡ / 건축면적 : 117.86㎡ / 연면적 : 117.86㎡ / 건폐율 : 21.87% / 용적률 : 21.87% / 규모 : 지상 1층 / 용도 : 단독주택



전남건축사회, 한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참여

지난 5월 22일 전남 도청 서재필실에서... 기술지원 및 자문 역할 나설 것으로



전라남도건축사회 박용묵 회장은 지난 5월 22일 전라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한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갑섭 전라남도 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나기백 문화재예방관리센터 단장, 임영

순 한옥마을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에 들어가는 한옥지원센터는 한옥과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44명의 재능기부로 구성된 한옥관리지원단과 사업 홍보, 보수 교육을 담당할 한옥마을협의회, 한옥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로 구성됐다.

특히 한옥관리지원단은 한옥 소유주나 거주자의 신청을 받아 한옥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지, 관리,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자문을 주는데 전남건축사회는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한옥에 거주하거나 소유한 도민들이 제대로 된 기술과 유지관리 방법 등을 문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한옥지원센터가 전남지역 한옥을 보존·관리하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민-관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나주시, 나주지역건축사회와 건축행정 발전 워크숍 개최

지난 5월 19일 나주 빛가람동 호텔코어에서... 관내 건축사·관련 공무원 60여명 참석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5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나주시 빛가람동 호텔코어에서 건축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건축사 및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기춘 나주부시장을 비롯한, 전남

건축사회 박용묵 회장, 나주시 관내 건축사 24명과 관련 공무원 36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해, 나주 원도심과 혁신도시 건축물 경관 및 형태, 견고 싶은 거리 조성, 노상 주차장 확보 등 건축행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기춘 부시장은 "원도심과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건축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건축 전문가와 행정 관계자가 한 자



광주건축사회 2017년도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7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건축사의 실무교육)
- (2) 실무교육 계획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장소	교육 시간	교육비
6월	27일(화) 14:00~17:00	전문	건축구조(설계실무)의 이해	황기태 대표 주식회사 예코링		3시간	45,000원
7월	25일(화) 14:00~16:00	전문	설계VE의 이해	서창수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VE협회	5층 대강당	2시간	30,000원
	25일(화) 16:00~18:00	전문	건축사의 세무상식	정호령 세무사 세무법인 서정		2시간	30,000원
10월 (예정)	미 정	윤리	건축사의 직업윤리	미 정	미정	1시간	무 료

-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4) 출석인정

-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출석체크

-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6)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과목명 클릭

※ 광주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길 바라며, 도출된 협력사항을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목 전남건축사회장도 "오늘과 같은 자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나주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한 상호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명품도시 나주 건설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혁신도시 건축물 경관·형태·다양성 확보, 혁신도시-원도심 견고 싶은 거리 조성 방안, 혁신도시 노상주차장 확보방안 연구 용역 설명,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을 비롯한 건축 행정 업무 등 민·관의 주제발표를 통한 활발한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동신대 건축공학과, 성과발표회 및 졸업작품전 개최

지난 6월 1일 학내 도서관 1층 로비에서... 30주년 기념으로 타학과와 공동 진행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학과장 이상준)는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학내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와 함께 캡스톤디자인 성과발표회 및 졸업작품전을 개최했다.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이번 발표회는 학과별로 개최되던 예년의 졸업작품전과 달리 국토 개발 및 건설 인력을 양성하는 3대 학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동신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으며, 총 23개 작품이 출품됐다.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2~3학년 재학생들의 작품도 다수 전시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임금비 동신대학교 학생기자

목포대 건축학과, 학생 대표 면담 및 학생토론회 열어

매주 1회 학년별 학생 대표와 교수 면담, 월 1회 학생주체 학생토론회 시행

목포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교수 주관 각 학년별 학생 대표들과 학생회 임원들이



진행 과정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면담을 통해 기존에 전공 수업에서만 보는 교수와 학생들 간에 딱딱한 관계가 아닌 소통을 통해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임준영 목포대학교 학생기자

모여 매주 월요일 6시부터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면담내용은 주로 학생들의 건의사항과 학과 프로그램 일정 등이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담당 교수가 검토 후 안건을 작성해서 전체 교수회의 때 보여주고, 역할을 분담해 요구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며

순천대 건축학부, 고등학교 건축동아리 지도봉사 프로그램 실시

지난 5월 11일부터 관내 3곳 고등학교에 23명의 대학생들 배정..



순천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가를 배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지역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지한 건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난 5월 11일부터 시작했다.

건축학부 학생들로 '고등학교 건축동아리 지도봉사팀'을 결성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의 건축학습 및 토론, 건축작품 탐구, 건축패널과 모형제작 등을 지원봉사하며, 고등학생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순천고등학교, 순천여자고등학교, 효천고등학교 총 3개의 고등학교에 23명의 대학생들이 배정되어 각 고등학교의 동아리팀을 만나 자율적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승완 순천대학교 학생기자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상호 및 형태변동)

- 박종경 건축사 /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마청룡길(중동)
- 박용목 건축사 / (유)다산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44

• 결혼

- 손정호 건축사 / (주)은하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05월 13일(토)
- 조봉기 건축사 / 조은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05월 27일(토)

대지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 대지면적 : 1,988.50㎡ / 건축면적 : 303.60㎡ / 연면적 : 882.54㎡ / 건폐율 : 15.27% / 용적률 : 44.38% / 규모 : 지상 3층 / 용도 : 복지 및 아동센터



벌교 복지회관
이철 건축사 / 가인 건축사사무소

Gallery 해밀

이동욱 건축사 / 두손모아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자곡동 / 대지면적 : 184.4㎡ / 건축면적 : 110.11㎡ / 연면적 : 300.31㎡ / 건폐율 : 59.71% / 용적률 : 162.86%
층수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노출콘크리트, 적벽돌치장, 징크판

전북지역 건축인 한자리에...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난 5월 13일 전북 완주군 구이 모악산 축구장에서... 건축인 800여명 참석



전라북도 내 건축인(건축사 및 건축직 공무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5월 13일 전북 완주군 구이 모악산 축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체육대회는 전라북도건축사회원 251명 및 가족 120

여명과 전라북도·시군 팀 195명, 전주시·완주군 팀 85명, 전북교육청팀 105명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전병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한마음 체육대회는 건축인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 및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김천환 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에 대한 전북건축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축인들 상호간 교류의 장을 통하여 건축발전은 물론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터전을 넓혀가는데 주춧돌이 되어 줄 것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북 건축인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2008년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북 완주지역건축사회 개소식(현판식) 개최

지난 5월 29일 완주군에서... 저소득층 위한 300만원 전북투어패스 전달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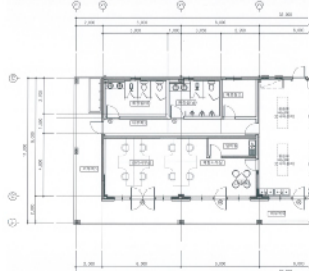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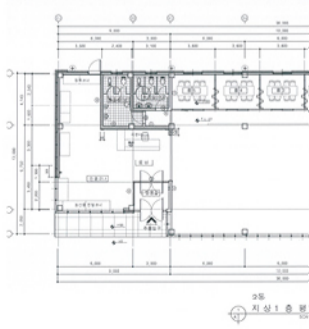


전라북도 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용규)가 지난 5월 29일 완주군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판식 행사에는 전라북도건축사회 전병갑 회장을 비롯한 박성일 완주군수, 이향자, 이인숙 완주군 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기념행사 후 조출한 다과와 함께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완주지역건축사회는 현판식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는 대신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전북투어패스를 완주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완주지역건축사회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익산·군산·남원·김제·정읍·고창지역과 함께 총 7개 지역건축사회를 구성하게 됐다.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전북 전주 추원호 건축사, 서예작품 전시회 '서예와 의 만남전' 개최

오는 6월 21일까지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 삼성문화회관 뒤편 전시장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추원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가 서예작품 전시회 '서예와의 만남전'을 개최했다. 지난 6월 9일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 삼성문화회관 뒤편 길위에갤러리 레드박스 전시장에서 오픈식을 갖고 오는 6월 21일까지 자신의 서예작품을 선보인다.

저명한 서예가인 추원호 건축사는 전라북도미술대전, 전국온고을미술대전 초대작가로도 활동했으며, 전국서화백일대상전 회화대회 대상 수상을 비롯한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동아미술대전, 전주시 예술상 등 다수의 입상경력과 여러 서화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주대 건축학과, '지역성'이란 주제로 제19회 졸업 전시회 개최

오는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전주대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

전주대학교 건축학과(학과장 임용민 교수)는 오는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 건축학과 5학년 졸업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졸업작품 전시회에서는 '지역성'이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계획안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5학년 작품 외에도 4학년의 '공동주거', 3학년의 '미술관', 1-2학년의 기초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전시된다.

한편 개막식은 6월 19일 오후 3시에 동장소에서 진행되며, 같은 날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박소라 전주대학교 학생기자

전북대 건축동아리 해비타트, 무료 건축봉사 나서

지난 5월 27일 전주 완산구 지역 혼자사는 장애인의 노후된 집환경 개선



전북대학교 건축동아리 '해비타트'는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틀간 무료 건축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전주시 완산구 지역에 혼자 사는 장애인의 노후된 집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집 앞 텃밭을 없애고 창고를 지어 보다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창고는 조적식(블록조)으로 해비타트 회원들이 직접 시멘트를 부어 기초부터 쌓아올렸다.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배운 이론들을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블록조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직접 시공 과정을 겪으며 보람을 느꼈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축공학과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심 있는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모인 해비타트는 이번 학기에 벽화그리기, 울산 건축봉사, 못박기를 통한 건축 모금 활동 등의 다양한 건축봉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다혜 전북대학교 학생기자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신대섭 건축사 / 신대섭 건축사사무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청로 85, 2층
 - 김진우 건축사 / ㈜바른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2길 3
- **변경(소재지)**
 - 조상민 건축사 / 상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평동로 725, 201동 203호
 - 김대운 건축사 / 린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 41길 12-1
 - 심재경 건축사 / ㈜아리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재대로 423, 6층
 - 김용안 건축사 / 코어한즈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조곡천1길 62, 602호
 - 이동욱 건축사 / 두손모아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조촌4길 13, 2층
 - 안영목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대지 / 전북 익산시 인북로 208, 3층
 - 김종왕 건축사 / 담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 253, 2층
 - 유영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823, 5층
 - 김성규 건축사 / 나우 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흥길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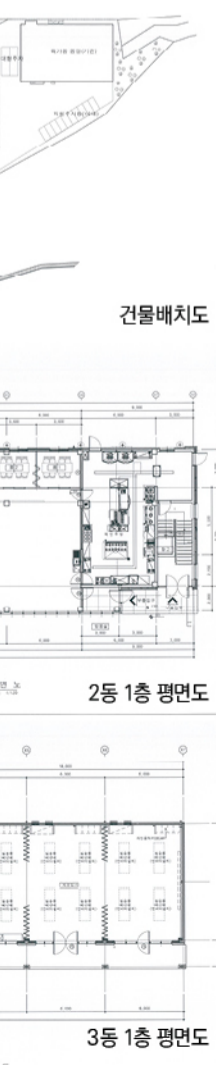
업도용 설계1본부 파트장의 초청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소라 전주대학교 학생기자

대지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852번지 외 4필지 / 대지면적 : 6,206㎡ / 건축면적 : 1,461.15㎡ / 연면적 : 1,494.15㎡ / 건폐율 : 23.54% / 용적률 : 24.07%
구조 : 2동-철근콘크리트구조, 3동-일반철골구조

장수레드푸드

이영운 건축사 / (주)누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촌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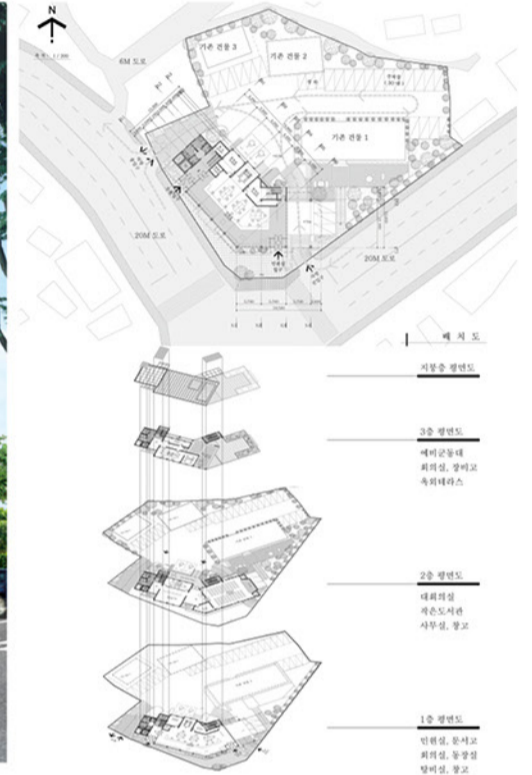
본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작품을 주민이 직접 참여 선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212-1번지 외 3필지
- 연 면 적 : 950㎡ (±5%이내 조정가능)
- 대지면적 : 2,840㎡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주민센터)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대정화, 절대정화구역
- 공 사 비 : 1,792백만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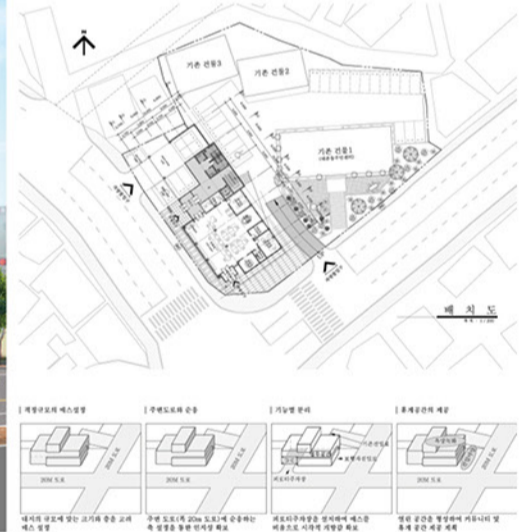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더공감건축
 가 작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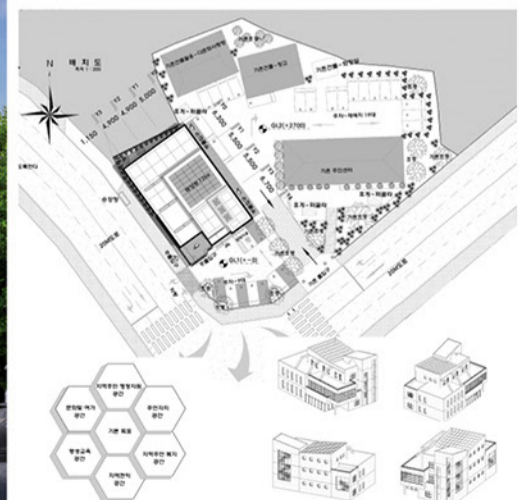
당선작
 류연창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우수작
 박상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더공감건축



가 작
 정태호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모든 프로젝트는 ‘내가 클라이언트이다’, ‘내 소유 건물이다’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며 진행을 합니다”_ 강연심 건축사와의 만남

광주건축사회 소속 여성 건축사 회원은 전체 광주회원 332명 중 17명으로 약 5%에 지나지 않는다. 그 소수의 여성 건축사들은 남성 건축사 못지않은 활발한 활동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백두 건축사사무소 강연심 건축사가 앞장서고 있다. 강연심 건축사는 현재 광주건축사회 이사이자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여성 건축사 모임 회장도 맡아 이 지역 여성 건축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광주 회원 박규상 건축사와 부부 건축사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다음은 지난 6월 5일 광주 북구 매곡동(서하로 92, 302호)에 위치한 백두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건축사로서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꿈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교육자나 약사를 선호하셨지만 미래의 강단에 선 모습,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습은 제게 흥미를 갖게 하지 못했고 꿈이 없었으니 당연히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한다는 아버님 뜻대로 원서를 썼고 3지망 건축공학과를 합격하였습니다. 설계수업을 받고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고 시간은 흘러 졸업을 했습니다. 막상 졸업을 하고 건축기사 1급을 취득한 후 반년동안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해 공무원 취업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천 번을 생각해봐도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로서 무난하다는 지인의 직업추천으로 설계사무소 취업을 하였는데... 취업한 그해 겨울, 정신병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즐거움과 희열로 건축사가 되겠다는 꿈을 난생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보기까지 5년 동안 단 하루도 설계에 대한 열망을 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소 개설 후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시기를 걸어왔지만 항상 맘 한 켠에 자리한 그때 그 즐거움과 희열을 간직하며 오늘도 열심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거창하게 건축철학이라고 까지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때그때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내가 클라이언트이다’, ‘내 소유 건물이다’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부분도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주택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휴식(온도, 습도와 수맥, 풍수)측면을 더 중요하게 접근하며, 종교시설은 영성 가득한 공간 형성으로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뤄야 합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건축사로서 자랑스러울 때는 건축주가 설계의도를 이해 해주며 감리기간에 시공자의 의견보다 더 존중받고 준공이후에도 건축주와 좋은 인연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

장 자랑스럽게 느끼고, 부끄러울 때는 천박한 자본논리에 의해 계획 및 설계자의 생각과 의도가 무분별하게 해체당하고 무시당할 때 전문 직업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 업역의 선택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광주지역 여성건축사모임 회장으로서 활동에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여성건축사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일과 가사, 육아업무를 겸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건축사들보다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원활하게 갖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협회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부 건축사(박규상 건축사)로 함께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건축사로서의 장단점에 대해?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업무영역의 분담과 협조로 효율적 운영과 업무시간조절이 용이하고 둘째, 삶과 인생의 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이 상승되며, 셋째, 업무상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프로젝트 진행 시 의견차이가 심할 경우 집에 퇴근해서도 감정의 여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젝트 진행 시 희로애락을 같이 공유하기에 즐거울 때는 배가 되지만 안 좋을 때도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좋을 수 만은 없지만 서로 의지해 가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책임이 많아지고 설계진행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지는 반면에 열악한 대가기준과 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이 증가되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본업무인 설계와 감리업무를 좀 더 전문가로서 위치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기존의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을 배웠던 기억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근무시간 내에 수행 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수준을 높여서 일과 후 생활이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일을 하고 즐기고 배우고 싶은 ‘행복한 설계사무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취재 : 박주현 건축사기자, 박유현 광주대학교 학생기자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광주 / 백두 건축사사무소 강연심 건축사



부부 건축사로도 활동 중인 강연심 건축사와 박규상 건축사



바쁜 업무에도 사회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2016년 12월 김치담그기 봉사활동에서)



광주지역 여성건축사모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주택



전남 담양군 수북면 오정리주택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동 큰빛자연생태 어린이집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하이메디컬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함께가는 교회

건축문화사랑 2017년도 상반기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워크숍 개최

- 신임 학생기자 대거 위촉으로 기사의 다양화와 학생들의 관심 증대 및 구독률 증가 기대
- 향후 본지가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되어 의미 있는 워크숍 되었다는 평가



2009년 11월 10일 창간되어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해 가는 본지 건축문화사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주·전남·전북지역 건축사 편집위원 30여명과 이 지역 4~5년제 대학교 건축 전공학과 학생기자 40여명의 노고가 있었다.

본지의 새로운 방향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거 구성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2017년도 상반기 워크숍이 지난 5월 26일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대표발행인인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과 공동발행인인 전북건축사회 전병갑 회장이 참석했고, 신·구 편집위원과 학생기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건축물투어를 비롯하여 신임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위촉식과 합동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합동간담회에서 향후 본지가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의미 있는 워크숍이 되었다는 평가다.

1. 일자 : 2017. 5. 26 (금) ~ 27 (토) 1박 2일

2. 장소 :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3. 참석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대표발행인)
전북건축사회 전병갑 회장(공동발행인)
편집인 정명환 / 자문위원 서재형
편집위원, 학생기자 등 26인

4. 워크숍 진행결과

▶ 대학생기자 기사작성 교육



▶ 전주한옥마을 및 경기전 답사



▶ 신임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위촉 - 광주 신임편집위원 1인, 학생기자 8인



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광주편집위원	김영규	건축사사무소 도담	학생기자	임준영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박유현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최길호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기자	배성훈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다혜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소연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일규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임금비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 합동간담회의 진행 및 결과



- 주제

- ① 2017년 하반기 지면편집 구성에 따른 협의
- ② 2017년 지역별 광고수주 계획 및 운영에 대한 협의
- ③ 신임 학생기자 위촉 및 학생기자 지원에 대한 협의 등 기타

- 협의결과

- 》지역별 지면 개설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장려
- 》각 지역 고등학교에 신문이 배포될 수 있도록 발송지 조정
- 》추후 적극적인 광고수주를 위해 제도 마련(광고 명예의 전당)
-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마련(문화투어 등)
- 》학생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면 개설 및 우수활동학생에게 정기총회 시 공로패가 수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였음

학생기자 워크숍 참석 소감



젊은 건축전공 대학생들과 건축사들이 모여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흥미로운 경험이었으며, 새로운 시간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잊지 못할 익숙한 느낌의 순간이었습니다.

- 임준영 목포대학교 학생기자



무엇이나 아는 것 없기에 어렸을적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설레었고 또 불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걱정을 언제 했냐는듯 서로를 반기고 친해지며 좋은 인연으로 다가온 '건축문화사랑' 학생기자라는 새로운 도전의식과 학교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열심히 해보리라 스스로 다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 박유현 광주대학교 학생기자



워크숍 동안 학생기자라는 하나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 실감 났습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에 대해 건축사분들의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 저도 명달아 애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뜻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 배성훈 전남대학교 학생기자



건축문화사랑 학생기자단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여러 대학 학생들과 평소 잘 만나지 못했던 건축사분들을 만나게 되어 혼자서 고민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어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 최길호 군산대학교 학생기자



건축을 전공하는 전라도지역의 학생분들을 만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학생기자로서 기사쓰는 방법을 배운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저녁식사자리에서 많은 건축사분들을 만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건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 김다혜 전북대학교 학생기자



학생기자단 워크숍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설계실을 나와 새로운 다른 지역의 건축학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가진 건축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기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 학생기자에 대한 크나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나는 학교를 대표하는 기자로 좋은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김일규 원광대학교 학생기자

사랑에서 _ 서른한 번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기억하십니까?

사회 환경이 바뀐 탓일까? 문득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생각났다.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기억을 더듬기 위해 인터넷을 뒤적이다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 시작은 2005년 12월에 출범한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위원장 김진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 2007년 11월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건축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12월에 공포되었고, 2008년 6월에 시행되었다. 김진애 위원장은 건축문화신문(제29호, 2008.1.1)과의 인터뷰에서, “건축은 기본이고, 문화는 포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덕분에 법 제정에 탄력을 얻었다.”고 밝히며, 대통령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노무현 정권 때 잉태되었다.

하지만 국건위의 출범은 이명박 정권시절인 2008년 12월에 이루어졌고, 2기와 3기를 거쳐 현재는 2016년 2월에 구성된 제4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국건위는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폐지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으며, 위상 축소로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말았다. 비근한 예로 이 글을 쓰기 위해 국건위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았더니 ‘개점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나마 위안거리를 찾자면,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목적과 기능만큼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실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건축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 정책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의 건축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건축 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국건위 정책의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건축’이며, 목표는 ‘효율적인 공공건축,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집,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환경,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 통일한국의 국토 미래상 제시’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기구인가? 특히, 토건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아니던가? 선진국들은 이미 탄탄한 건축정책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문화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이나 국건위를 배제 또는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건축문화의 수준은 누구나 쉽게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문화는 국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것이 바로 국건위의 필요성이자 앞으로의 역할이다. 그 명칭만으로도 건축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 건축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자문위원 _ 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법/령/정보

□ [의원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번호 2007087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이에 적정 설계비용 및 감리대가 지급으로 부실한 설계를 미리 방지하고 건축주 요구에 따른 행정부서 협의와 관련된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의3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p>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p> <p>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정명환 부편집인 강동영,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전담기자 객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현,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p>	<p>광고 및 구독신청</p> <p>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p> <p>•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하단광고 : 350,000원 •하단1/2광고 : 200,000원</p> <p>•구독료 : 20,000원/1년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p> <p>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p>	<p>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p> <p>•발전기금 : 1만원부터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p> <p>조선기와 350,000원 (주)마이디스아이티 300,000원 세무법인 서정 100,000원</p> <p>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p> <p>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p> <p>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p> <p>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p>
---	--	---

세상사는 느낌 _ 강정원 독자 / 세종특별자치시



대한민국의 축

작년 말부터 우리는 촛불이라는 혁명을 대한민국 중심광장인 광화문에서 이루었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의 남문인 광화문 앞거리를 육조거리라 칭했다. 조선개국 때 정도전이 한양에 경복궁의 터를 잡을 때 축은 북쪽으로 삼각산(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에서 경복궁을 거쳐 한강너머로 관악산을 주된 축으로 경복궁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경복궁 근정전의 앞부분을 헐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건립할 때 건물의 주축이 관악산이 아닌 그 당시 일본신사가 있었던 남산(목멱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로부터 육조거리가 세종로로 바뀌면서, 광화문 거리가 축이 바뀌는지도 모른 채 도시개발로 이어졌다. 그리고 해방 후 지금에 와서 광화문 광장의 주변건물과 세종대왕 좌상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마저도 뜻하지 않게 주축을 잃어버린 채,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응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심축이라는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이 우리에게 언제쯤 틀어진 축이 아닌 진정한 중심축으로 되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책 소개 _ 김성중 건축사 / 도담 건축사사무소

버리고 비웠더니 행복이 찾아왔다.

야마구치 세이코 지음 / 은영미 옮김 / 나라원 / 2016. 08. 10.



흔히 '집안일에는 끝이 없다고 한다'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다보면 하루가 짧다고 한다.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점점 늘어만 가는 살림살이들을 보게 된다. 버린다고 버렸지만 이사를 갈 때 쯤 정리하다보면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이사를 가는 목적은 가족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찾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그 넓은 집에 또 다른 물건들로 가득하게 된다. 공간이 항상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람은 집이 좁다고 불만을 갖기 시작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봄이 오고 꽃은 피건만

새벽 산길에 오른다
지난 초겨울까지만 해도 보이던 그녀이
요즈음 보이지 않는다

누구에게 욕을 해대는지
어디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지
꼭지 돌아
정신없이 서성이고 해면 세상

아이들도
남편도 잃어버렸는지
지난 세월이 그립고
다가올 시간이 서러워
날이면 날마다 그럭저럭 산속을 헤매이고

그녀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그리움을 우려내어
외로움을 닦래고 있을 것이다

푸르른 하늘 하얀 구름 타고
요단강 건너는 살바람 타고
입안 가득한 미소 춤을 추며
그녀은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다

이녀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녀만의 세상을 찾아 떠난 것인가
오늘은 유난히도 그녀이 궁금해진다
꼭지는 왜 돌아버렸는지

봄이 오고 꽃은 피어도
한겨울 공원 벤치에 잠들어 있을 것만
같은 그녀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조금이나마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와 버리고 비웠더니 왜 행복이 찾아 왔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현대사회에서 불필요하게 넘쳐나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삶과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삶. "좁았던 것은 집이 아니라 버리고 내려놓지 못한 마음, 이제 갖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갖는다." 이렇듯 이 책은 미니멀리즘을 저자가 실제 사용하는 물건의 사진과 설명을 통해 미니멀한 인테리어, 청소, 세탁, 수납, 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상적인 부분은 가족이 함께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본문 중에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기 위해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있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삶을 선택한 후로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것이 '가족을 내 식대로 뜯어고치고 싶다'는 욕심이었다. 가족의 습관을 내 뜻대로 뜯어고치려는 욕심을 버리고 단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보완한다면, 적게 소유하고 살면서도 마음만은 한없이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세대에게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물건을 버리고 비우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 욕심, 집착, 이런 것들을 버리고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미니멀리즘이 아닐까 싶다.

내손 안의 스마트감리앱

국내최초 국내유일 공사감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키엠

201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반영!!

PDF매뉴얼 다운로드
www.archim.kr

facebook 아키엠

youtube 아키엠